갑진년 새해 첫 읍면동장 회의

군산시, '걷고·보고·듣는' 읍면동 현장소통 행정 나서… 특화사업 발굴

군산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갑진년 새해 첫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했다.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2024년 읍면동 신규 특화사업 발굴및 본청 관과 소에서 읍면동에 공유가 필요한 시정 주요 당면 업무와 홍보 사항이 전달됐다.

이어 읍면동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신규 특화사업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사업자 공개모집 △2024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개최 홍보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 안내 등이 보고됐다.

읍면동 신규 특화사업으로는 △옥산면 '청암산 구슬뫼 전국등산축제' △회현면 지역과 함께하는 '멋찐인생 멋찐사진' △대야면 '와우산 편백숲 한마음 걷기 행사' △옥도면 '빛을 품은 섬- 무녀·선유 야간 경관 조성사업' △삼학동 '찾아가는 청춘교실' △흥남동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집단상담' △경암동 '철길마을 골목길 벽화사업'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 △소룡동 '기업·주민 상생 프로젝트 1℃' 등이 보고됐다.

작년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읍면동 특화사업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리더와 주민협력을 통한 사업까지 함께 발굴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특히, 소룡동은 관내 기업과 정기기탁 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수익을 주민 체감형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주민 상생 프로젝트 소룡 1℃'를 추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개소를 시작으로 한 프로젝트는 현재 6개소를 발굴하였으며, 2025년까지는 20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중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지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읍면동장 현장 소통행정, 불합리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평균 73세 "배움에는 나이 없다"

익산시, 행복학교 제4회 초등학력인정과정… 졸업생 18명 배출

익산시가 평균연령 73세 초등학생의 졸업을 응원하며 평생학습 배움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23일 익산시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익산행복학교 제4회 초등과정 졸업식을 개최했다.

여산반 10명, 부송반 8명 총 18명의 졸업생과 교사,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학습활동이 담긴 영상 감상과 졸업장 수여,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졸업생 중 최고령 학습자는 여산반 임영월(88) 어르신이다. 고령에도 노력과 열정으로 학습의 성과를 이뤄내고 중학교 예비반에 지원해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몸소 보여줬다.

졸업생 최정숙(69) 씨는 "졸업장을 받으니 자다가도 웃음이 나고 너무 기쁘다"며 "동창생과 은사님도 생겼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성실하게 참여해 초등학력을 성취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초등·중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시민들이 최대한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더욱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행복학교는 2011년 4월 교육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을 시작했다. 현재 29개 읍·면·동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 유휴시설로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확대 운영하며, 익산시민의 배움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학력 인정과정을 대폭 확대 운영해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황등 노인복지관·시립도서관에서 초등학력 인정과정을 시작했고, 부송 시립도서관과 익산교육문화회관에서 중등학력 인정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중·고생 무상 교통 홈페인지 시연회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난 23일 청사 내 면담실에서 청소년 유관단체 등과 함께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홈페이지 시연회를 가졌다.

민선8기 공약인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사업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고등학생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업이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홈페이지 가입, 교통카드 등록, 교통 이용 내역, 지원금 지급 등 홈페이지 전반적인 환경 설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시연회 후 강임준 군산시장은 "많은 학생들이 무상교통 카드를 이용하여 교통비 절감 등 삶의 질을 향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동행!백반 여행' 케이(K)-관광 선도 나서

익산시가 '동행! 백반 여행'을 시작하며 익산의 맛과 멋을 알려 케이(K)-관광 선도에 나선다.

백반 여행은 '백제에 반하다'라는 의미로 백제 역사 도시 익산의 문화재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한 시티투어 상품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익산역 내 홀로그램 센터에서 시작해 원불교 총부, 고스락, 아가페정원, 국립 익산박물관(미륵사지 유적 포함), 왕궁리 유적을 방문하고 중앙동 계화림 앞에서 마무리한다.

백반 여행에 맞게 고스락 이화동산에서 고급 한식 백반을 제공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하루 동안 짧지만 인상 깊은 익산 여행을 제공한다.

시티투어 승차권을 제시하면 오후 6시 계화림에서 하차해 20% 할인된 가격(주류 제외)으로 닭구이를 즐길 수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정주환경 조성 위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박차

'2025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선정 회의' 통해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최근 '2025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 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시는 군산국가산업단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유치에 시 역량을 투입,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이차전지 기반 기업들의 입주로 관련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산시는 2025년 국가예산사업 발굴 방향을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발굴 추진 해나가고, 이를 위해 해당 부서별 실무자 발굴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 군산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9건을 발굴하고 본격적인 국가 예산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 생활 SOC 연계 학교복합시설 조성,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조성, △舊서해대학교 도시재생사업,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사업, △IFSC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 유치 △금강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문화동 일원 침수 피해지역 개선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다.

특히, 군산 생활 SOC 연계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방과 후 학습 및 지역주민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형태의 학교복합 시설 설치로 교육인프라와 지역 정주를 위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며, 오랫동안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었던 舊서해대학교 건물의 활용방안 사업도 구체화 되는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시,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문화동 일원에 대하여 우수관로 정비, 우수저류조를 설치하는 문화동 일원 침수 피해지역 개선사업은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확대

익산시가 소상공인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업 역량 강화를 뒷받침한다.

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를 2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기존 시설개선 지원과 무료 컨설팅이 추가됐다. 시설개선은 옥외간판 및 외·내부 인테리어 등 사업장 내 노후 환경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 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컨설팅의 경우 경영진단·마케팅·점포 운영 중 원하는 1개 분야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의 1:1 컨설팅을 최대 3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과 전문적인 컨설팅의 연계로 사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소상공인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매출 규모 및 영업 기간 등을 감안해 심사를 거쳐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과(063-859-521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영난을 타개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여성이 행복한 농업·농촌'… 익산시, 건강관리 지원

익산시가 여성농업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지역 여성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검진비 22만 원 중 자부담금 10%를 시비로 지원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짝수 연도에 출생한 만 51~70세(1954~1973년 출생) 여성농업인 800명에게 검진 비용이 지원된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여성농업인은 다음달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 명품 도시 발돋움

익산시가 다수의 전국 대회에 이어 국제대회를 유치하며 스포츠 명품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코리아 마스터즈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리아 마스터즈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25개국, 1,000명 이상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메이저급 배드민턴 국제대회다.

대회는 11월 중 익산실내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일원에서 6일간 개최되며, 세계배드민턴 최정상급 선수가 참가하고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을 통해 국내와 해외에 중계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대회 개최지인 광주광역시 등 개최 희망 도시들과 경쟁을 펼쳐 지난 1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현장 평가와 서류 심사를 거쳐 대회를 유치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국제대회 유치로 익산에 방문할 1만여 명의 선수와 관람객에게 익산시의 아름다움을 알려 국제교류 확대에 힘쓰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명품 도시로서 익산의 국제적인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